

실학자 한백겸의 고구려령역에 대한 견해분석

최 연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사상가들은 <실사구시>, <실용지학>을 주장하면서 뒤떨어진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5권 443페이지)

조국력사에 대한 진지한 탐구적립장에 서있던 실학자들은 역사연구의 중요한 분야인 역사지리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특히 그들은 이전시기에 편찬된 역사지리책들을 참고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것이 아니라 틀리거나 애매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하나하나 고증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나갔다.

우리 나라 역사연구에서 새로운 학풍을 일으킨 선구자의 한사람인 실학자 한백겸은 가장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였다.

한백겸은 저서 《동국지리지》에서 고구려력사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으며 결과 여러 문제들을 해명하였다.

《동국지리지》는 고조선으로부터 고려시기까지의 력사와 지리를 서술한 력사지리책으로서 실학자인 한백겸(1522—1615년 호 구암)에 의하여 1615년에 편찬되였고 1640년에 출판되였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의 령역에 대한 한백겸의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고구려력사의 일면을 밝히려고 한다.

고구려는 우리 나라의 봉건국가형성에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였고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였으며 삼국통일을 추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중심적역할을 하였다. 그 과정에 고구려는 동서 6 000리, 남북 5 000리에 달하는 광대한 령토를 가진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사가들과 봉건대국주의사가들은 고구려의 령토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으로부터 혹은 의식적인 행동으로부터 그것을 왜소화하여 기록해놓았다.

그러므로 한백겸은 여러 자료들에 근거하여 고구려의 령역을 력사지리적으로 정확히 해명하려고 하였다.

한백겸은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의 령역이 압록강이남이 아니라 그 이북의 룡동일대였다는것을 밝혔다.

종래 《고려사》나 《여지승람》 등에서는 평양을 동명왕의 도읍터로, 성천을 비류국으로, 그앞에 흐르는 비류강을 비류국의 비류수로 확신하면서 고구려의 초기령역을 압록강이남 지역으로 보아왔다. 물론 이 견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한백겸은 고구려가 존재하는 전기간 압록강이남지역만을 차지하고있었던것이 아니라 룡동일대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으며 룡동성, 안시성, 백암성, 건안성, 개모성, 비사성, 신성 등 고구려의 중요한 성들도 다 룡동지방에 있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고구려말기에 당나라침략자들이 이 성들을 공격할 때 론한 내용들과 룡수(룡하)서쪽에 고

구려가 침략자들을 막기 위하여 설정한 전초기지 무려라에 대한 사실들을 함께 참작한다면 이 성들의 위치를 짐작할수 있고 또 고구려가 여기 국경일대를 고수하고 국토를 보위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알수 있다고 하였다.*

* 《동국지리지》 고구려 형세, 관방

한백겸이 룡동일대의 여러 성들의 이름을 기록해놓은것은 고구려의 령역을 연구해볼수 있는 자료적근거를 마련해놓은것이다. 기록에 보이는 신성과 개모성은 룡동의 북쪽일대에 위치하고있었으며 안시성과 백암성, 룡동성, 건안성은 룡하계선에 있었다. 이 성들은 당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서 요충지로 되었던 고구려의 성들로서 룡동지역에서도 기본성들이었다.

비록 한백겸이 고구려의 령역을 동서남북으로 꼭 찍어서 말하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은 종래 고구려의 령역을 압록강이남지역으로 국한시켜보던 일부 견해에서 한걸음 전진하였다고 볼수 있다.

결국 이 지역의 이름만 보아도 룡동일대가 고구려의 기본령역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백겸은 다음으로 삼한-삼국설의 부당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고구려의 령역을 밝혔다.

삼한-삼국설은 후기신라의 봉건관료였던 최치원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마한은 고구려이고 변한은 백제이며 진한은 신라이라고 하면서 삼한과 삼국을 서로 연관시켜보았다.*

* 《삼국사기》 권46 렬전6 최치원

이 설을 그대로 따르다면 고구려의 령역은 마한지역으로 한정되고 나아가서 고구려의 령토가 한강이남지역을 벗어나지 못한것으로 되고마는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고구려는 마한지역정도가 아니라 압록강이남은 물론 압록강을 넘어 룡동지역의 넓은 령토를 차지한 강대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한이 고구려였다는 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이어졌으니 실학자인 한백겸으로서는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신라이래의 하나의 정설로 굳어져내려온 삼한-삼국설을 비판하고 정확한 해명을 하였다.

한백겸은 우선 삼한의 지리적위치를 통하여 삼한-삼국설의 비과학성을 까밝히면서 고구려의 령역을 밝혔다.

그는 《동국지리지》에서 삼한은 조선의 남쪽지역에 있었는데 그가운데서 마한은 후날의 백제, 진한은 후날의 신라, 변한은 후날의 가야국이 되었고 고구려는 원래부터 이 삼한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다.*

* 《동국지리지》 고대조선

이것은 지난 시기 삼한에 대한 력사연구에서 이룩한 성과들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고구려의 령역이 마한과 인연이 없다는것을 밝힌것으로 된다.

한백겸은 또한 고구려가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은 사실을 통하여 고구려의 령역을 해명하였다.

그는 《고조선이 북쪽에 있었고 후에 그것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한 다음에 현도군의 속현의 하나인 고구려현에서 일어난 고구려가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고조선땅을 회복하였는데 이때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영역이 삼한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것은 〈한서〉, 〈후한서〉 등 옛 기록들에 명백하다. 이것들의 영역이 과연 마한이나 변한땅과 무슨 인연이 있단말인가.》*라고 하면서 고구려의 영역이 삼한과 전혀 인연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하였다.

* 《동국지리지》 고대조선

※ 이 글에서 고구려와 삼한이 인연이 없다고 한데 대하여 잘 이해하여야 한다. 한백겸이 고구려와 남쪽의 삼한이 인연이 없다고 한것은 지역적으로 인연이 없다는 뜻이지 혈연적으로 무관계하다는 뜻은 아니다.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이고 진국 또한 고조선에서 갈라져나온 나라였기때문에 고구려와 진국은 혈연적으로 한피줄을 이은 나라들이었다. 다만 고구려의 영역이 마한지역에 한정된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고구려와 삼한이 인연이 없다고 한것이다.

물론 한백겸은 대국주의사가들이 써놓은 중국사서 《한서》, 《후한서》의 외곡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다보니 일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있었지만 그속에서도 고구려의 땅이 남쪽의 삼한과 인연이 없는 북쪽의 룡동일대였다는것을 증명하였다.

한백겸은 고구려영역과 관련하여 역사지리적으로 많은 해명을 하였지만 그 해명에서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제한성은 우선 고구려를 한나라 현도군의 속현인 고구려현에서 일어났다고 한것이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고조선이 북쪽에 있었고 후에 그것이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한 다음에 《현도군의 속현》의 하나인 고구려현에서 일어난 고구려가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고조선땅을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 《동국지리지》 고대조선

한무제는 고조선이 무너진 다음 고구려사람들속에서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자 어떻게 해서라도 현도군을 고구려땅에 두려고 망상하면서 현도군의 수현(군소재지)을 고구려현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한나라통치배들이 고구려지역까지도 다 차지한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만들어놓은것이였다.

중국의 역대 봉건사가들은 그것을 더욱 외곡, 과장하였다. 《후한서》의 편찬자 범엽(398—445년)은 한무제의 동방침략이후 고구려를 현으로 삼아 현도군에 소속시켰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고구려에 5부5족이 있었고 왕이 있었으며 자체의 고유한 통치기구가 있었고 고구려가 옥저, 동예를 다 복속시켰다고 쓴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다. 후세사가들은 범엽의 말을 아무런 의심도, 분석도 없이 그대로 믿고 현도군의 영역을 터무니없이 넓게 잡는 착오까지 범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사실을 보면 고구려는 한나라침략군이 고구려의 서북변방에까지 침범하기때문에 즉시 현도군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였으며 얼마 안되어 현도군은 무순지방으로 쫓겨났다.

한백겸의 이러한 견해는 고구려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없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데로부터 나온 결함이었다.

제한성은 또한 고구려가 그 말기에야 룡동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한 것이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고구려 봉강조에서 《내 생각에는 룡동은 본래 중국땅이나 고구려말기에 비로소 분할하여 룡하에 이르러 경계를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도 고구려가 그 말기에 와서야 비로소 룡동지역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한백겸이 쓴 《동국지리지》의 다른 자료들과 대비해볼 때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한백겸은 《동국지리지》 고대조선조에서 동명왕이 나라를 세운 곳을 의주 압록강대안 룡동지역이라고 하였다. 물론 고구려가 초기부터 광활한 룡동지역을 다 차지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고구려가 벌써 건국초기부터 룡동지역을 자기들의 활동지역으로 삼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백겸은 또한 《동국지리지》 고대조선조에서 고구려가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하였다고 하였다.

고구려가 한나라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한 시기는 4세기 중엽이었으며 차지한 령역으로 보면 룡동지역이었다. 4세기 중엽이라고 하면 고구려말기라고 할 수 없다.

※ 물론 고구려는 4세기 중엽에 전연의 유주일대까지 진출하여 고구려의 유주를 설치하였다가 주동적으로 철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유주일대에서는 철수하였지만 룡동일대는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적어도 4세기 중엽에는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하여 룡동지역의 광대한 령토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백겸이 고구려의 건국지를 룡동지역이라고 한 것이나 고조선의 옛땅을 회복하였다고 한 자료들은 고구려가 그 말기에야 룡동을 분할하여 룡하를 계선으로 하였다는 자료와 서로 모순된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그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룡동지역을 차지하였다고 한 한백겸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위의 자료에서 《료하를 경계로 삼았다.》고 한 것 역시 한백겸의 오류이다.

고구려가 경계를 삼았다고 하는 룡하는 고구려의 서쪽경계선이였다. 고구려는 유주진출이후부터는 룡하, 대릉하를 넘어 의무려산줄기—시라무렌강하류계선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서북쪽경계는 멀리 대흥안령산줄기 동쪽기슭계선으로 확장되었으며 더 나가서 흑룡강을 지나 그 지류인 제야강류역까지 미치였다.

제한성은 또한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던데로부터 고구려의 령역변천에 대하여 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는 《지금의 함경도는 옛날 옥저땅으로서 후에 고구려에 통합된 것인데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가 함흥 황초령에도 있고 단천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은 한때 신라의 령토로 된 적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 《동국지리지》 고구려 봉강

한백겸의 이 견해는 금석문을 력사연구에 리용하는 진지한 학풍을 보여준것이였고 또한 력사에서 두 비에 대한 최초의 명확한 기록인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에는 이것에 기초하여 비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두 비석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신라의 령역문제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령역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두 비석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일부 력사관계도서들에서는 삼국시기 신라의 령역에 대하여 6세기 중엽에 북쪽으로 오늘의 함경남도 리원지역까지를 차지하고있었던것처럼 서술하였다. 그것은 바로 진흥왕순수비인 마운령비와 황초령비 두 비석의 현 위치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바로 한백겸은 《동국지리지》에서 서술한 그대로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 근거하여 고구려의 령역을 잘못 인식하고있었다.

최근 마운령비와 황초령비에 대한 연구과정에 이 두 비석들의 현 위치가 원래의 위치가 아니라 옮겨다놓은 자리였다는것이 증명되었다. 신라가 6세기 중엽에 고구려지역을 차지하고 세웠다고 하던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의 원래 위치는 강원도 철령과 안변이며 따라서 이 시기 신라의 북쪽경계는 함경남도지역이 아니라 강원도 철령, 안변계선이였다.

이처럼 한백겸이 연구한바와 같이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으면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해온 천년강대국이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비류국, 료동일대